

## 클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에 나타난 소외와 폭력

송 성 회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 차 례

1. 서론
2. 소외의 개념
3. 텍스트에 나타난 소외
4. 텍스트에 나타난 폭력
5. 결론

### 1. 서론

60년대 이전까지는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s 를 주로 전형적인 위대한 국외자, 혹은 절대 자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주로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중엽 이후에는 클라이스트의 작품에 담겨 있는 “사회적 함의 die gesellschaftlichen Implikationen”를 주목하기 시작했다.<sup>1)</sup>

또 그의 노벨레 「칠레의 지진 Das Erdbeben in Chili」의 결말에 대해서도, 60년대 이전에는 주로 낙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츠 W. Silz<sup>2)</sup>가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이후로는 오히

1) B. Allemann, Der Nationalismus Heinrich von Kleists, S. 47.

2) W. Silz, Das Erdbeben in Chili, S. 351 - 366.

러 비판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문학 텍스트가 현재에도 읽히는 것은, “이미 발견된 사항이 요즘 사람들에게 전달 매개되어 그들이 이것을 새로운 상황 속에 자리매김하는 방식,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다른 세대와 비교하고 역사적 진실에 걸맞게 현재와 관련지우는 방식”<sup>3)</sup>과 관계가 있다. 클라이스트의 텍스트들이 거의 200년에 이르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후 독일에서 많이 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클라이스트의 현대성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술자가 예전처럼 세상이치를 샅샅이 알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서술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가 아니다 (...)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 (...) 관용이나 요즈음의 다원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개방성은 클라이스트의 근본 문제를 분명히 보여 준다.”<sup>4)</sup>

클라이스트의 현대성은 서술자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 Seher”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조직화하여 기능적 합리성이 증대되면 개인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직관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명석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성비판과도 관계가 있다.<sup>5)</sup> 바로 이 때문에 클라이스트는 괴테 J. W. Goethe 와 같은 시대에 작가활동을 했음에도 괴테의 경우와는 다른 현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벨레는 1807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교양 계층을 위한

3) W. Müller-Seidel, Kleists Aktualität, S. 2: “die Art, wie das schon Entdeckte heutigen Menschen mitgeteilt und vermittelt wird, indem man es in neuartige Zusammenhänge stellt, mit andern vergleicht und Beziehungen zur eigenen Gegenwart herstellt, die der historischen Wahrheit entsprechen”.

4) Ebd., S. 14: “Der Erzähler weiß über den Weltlauf nicht mehr in allen Punkten Bescheid. Er ist (...) der Seher nicht mehr (...) So muß denn vieles, wenn nicht das meiste, offenbleiben (...) In solcher Offenheit, die nichts mit Liberalität oder heutigem Pluralismus zu tun hat, zeichnet sich ein Grundproblem Kleists deutlich ab.”

5) 정몽간,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204쪽.

조간신문 *Morgenblatt für gebildete Stände*에 연재된 것으로, 당시의 지식인 계층에게 “수수께끼같은 사실들을 설명 없이 rätselhafte Fakten ohne Deutung”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술을 통한 미적 교육을 지향한 당시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의 경우와는 정반대가 되는 방법이다.<sup>6)</sup>

이 텍스트에서 우연은 주인공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우연은 예측불허의 인간운명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잘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연에 의해 온갖 불행을 당하는 인간들 자신의 오류가 바로 이 우연의 “공동섭정자 *Mitregent*”<sup>7)</sup>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이 텍스트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데, 소외된 인간들이 겪는 우연한 불행은 결국은 소외를 야기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오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예측불허의 사회는 사회학자 시맨 M. Seeman이 분류한 소외 유형의 하나인 “무의미성 *meaninglessness*”을 야기할 수가 있다. 시맨은 이 무의미성을 “인간이 그것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의 미래의 진행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사태나 사건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sup>8)</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예측불허의 사회상황에서는 개인이 소외로서의 무의미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칠레의 지진」은 보편적인 진리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사회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 텍스트에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사회학 분야의 소외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텍스트에 나타난 소외를 살펴 보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폭력을 분석해 보임으로써, 소외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16) Friedrich A. Kittler, *Ein Erdbeben in Chili und Preußen*, S. 26f.

7) Arthur Schopenhauer, zitiert nach: E. Köhler, *Der literarische Zufall, das Mögliche und die Notwendigkeit*, München 1973, S. 100.

8) 정문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203쪽.

## 2. 소외의 개념

헤겔 G. W. Fr. Hegal 은 소외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소외는 “정신이 자신의 풍요성을 위해 자신을 외화하는 상태”<sup>9)</sup>, “통일(일치)의 완성에 봉사하는 분열상태”<sup>10)</sup>, “정신의 본질적 존재에 도달하는 과도기로서 정신이 자신의 외적인 것에 양도되는 과정”<sup>11)</sup>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에게서 떠나 신이나 초인간적 존재로 빠져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결과로 나타난 변화”<sup>12)</sup>를 의미하는 라틴어 alienatio와 그리스어 ekstasis의 쓰임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 헤겔은 역사의 객관적 영역과 자연의 외적 영역을 창조하는 정신의 소외과정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포이어바하 L. Feuerbach 는 인간이 만든 허구적 본질인 가상의 신을 소외된 실재로 본다. 그러나 이 소외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와 그 신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확대경”<sup>13)</sup>으로 봉사한다. 즉 소외를 통해 창조된 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고유한 형태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창조자인 인간을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이어바하는 소외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K. Marx 는 소외를 “인간 본질의 왜곡”<sup>14)</sup>이라고 보았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힘은 외부의 신이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힘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외과정, 즉 역사적 소외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은 그의 물신개념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소외된 대상”으로서의 물신(物神, der Fetsich)을 “사실은 창조된 대상에 불과하면서도 현존하는 것이라고 부당하게 인정받는 대상”<sup>15)</sup>이라고 정의한다. 마르크스는 물신숭배로 인한 “인

9) N. 로텐라이히 정승현 옮김, 청년 맑스의 철학, 156쪽.

10) 같은 책, 152쪽.

11) 같은 곳.

12) 같은 책, 146-7쪽.

13) 같은 책, 157.

14) 같은 책, 158.

15) 같은 책, 160.

간의 비인간화”<sup>16)</sup>를 곧 소외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분석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소외’ 개념은 결국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예 반란이 있었던 노예제 사회에 대해서도 이 소외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카우프만의 견해다.<sup>17)</sup>

소외라는 개념을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은 그 인간과 사회가 본질적인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외 개념은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외 개념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개념의 쓰임이 크게 사회구조적 의미와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극복되어야 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즉 소외의 원천과 관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관계가 있다.<sup>19)</sup>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쓰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 3. 텍스트에 나타난 소외

시맨은 대중 사회 이론에서 소외의 제형태를 유발시키는 독립변수로 지적된 현대 사회의 구조적 경향들 중의 하나로 혈연관계에서 비인격화로 의 변화경향을 들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혈연관계”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는 한편 “의명성”과 “비인격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이다.<sup>20)</sup> 그런데 바로 이 현상을 클라이스트의 텍스트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노벨레의 서두에서는 클라이스트의 모든 소설처럼 소설전체를

16) 월터 카우프만 (김병익 역), 소외에 대한 관심, 27쪽.

17) 같은 책, 32쪽 참조.

18) 신오현, 소외이론의 구조와 유형, 59쪽 참조.

19) 김진영, 소외와 아노미, 243 쪽.

20) 정문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200 - 201쪽.

지배하고 있는 대립관계가 간략하게 압축되어 있다. 지진이라는 자연의 사건과 인간의 사건의 대립이 그것이다. “객관적 서술의 문체인 보고체이면서도 기법상 줄거리의 중요부분을 서두에 놓은 르뽀 형식”<sup>21)</sup>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의 기법을 염두에 두고 서두 부분을 자세히 보자.

“칠레 왕국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수 천 명의 사람이 파멸했던 1647년의 큰 지진이 터진 바로 그 순간, 어떤 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예로니모 루게라라고 하는 한 젊은 스페인 사람이 감금되어 있던 형무소의 한 기둥 옆에 서서 목을 매어 죽으려고 하였다. 그 도시에서 아주 부유한 귀족에 속하는 돈 헨리코 아스테론이, 자신의 외동딸인 돈나 요제페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었기 때문에, 가정교사였었던 그를 약 1년 전에 파면시켰었다. 그가 딸에게 엄하게 경고를 한 뒤, 자랑스러운 그의 아들의 음흉한 염탐을 통해서 그에게 누설되었었던 은밀한 전언(傳言) 때문에 화가나서 그 늙은 돈은 그녀를 그 지방 카르멜 교단 수녀원에 넣어 버렸다.” (Text, 687f.)<sup>22)</sup>

In St. Jago, der Hauptstadt des Königreichs Chili, stand gerade in dem Augenblicke der großen Erderschütterung vom Jahre 1647, bei welcher viele tausend Menschen ihren Untergang fanden, ein junger, auf ein Verbrechen angeklagter Spanier, namens Jeronimo Rugera, an einem Pfeiler des Gefängnisses, in welches man ihn eingesperrt hatte, und wollte sich erhenken. Don Henrico Asteron, einer der reichsten Edelleute der Stadt, hatte ihn ungefähr ein Jahr zuvor aus seinem Hause, wo er als Lehrer angestellt war, entfernt, weil er sich mit Donna Josephe, seiner einzigen Tochter, in einem zärtlichen Einverständnis

21) 신태호, Heinrich von Kleist의 소설기법, 212쪽.

22) 본문에서 “Text”는 “Heinrich von Kleist, Das Erdbeben in Chili, in: Ders., Werke in einem Band, München 1966”를 나타내며, 아라비아 숫자는 그 페이지를 지칭함.

befunden hatte. Eine geheime Bestellung, die dem alten Don, nachdem er die Tochter nachdrücklich gewarnt hatte, durch die hämische Aufmerksamkeit seines stolzen Sohnes verraten worden war, entrüstete ihn dergestalt, daß er sie in dem Karmeliterkloster, unsrer lieben Frauen vom Berge daselbst unterbrachte.

칸트를 통해 사람의 이성으로는 物自體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 후로 문학을 시작한 클라이스트는 사물의 현상만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문체를 소설에서 사용했는데, 바로 이 소설의 서두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또한 앞으로 이야기 될 사건의 진행이 “적어도 사실이라는 점”<sup>23)</sup>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소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전을 통해서서는 1647년의 지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칠레가 예로부터 지진 다발지역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의 글에서는 주요 인물인 요제페의 가정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귀절들이 나온다. “자랑스러운 stolz”, “음흉한 hämisch”이라는 수식어가 그것이다. 서두의 객관적인 르뽁형식에 걸맞지 않는 표현은 이것들 뿐인데, 이는 요제페의 가정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선도하려 하기보다는 ‘음흉하게’ 염탐하여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음흉한’ 아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무관심한 가장이다. 혈연관계를 토대로 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관계성까지도 결여되어 있는 비인격화된 가정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집안의 위신이나 체통을 외동딸보다 더 중시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 가정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바로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의 소외현상은 예로니모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3) 신태호, Heinrich von Kleist의 소설기법, 207쪽.

예로니모의 가족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야 비로소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을 알아 보고 몽둥이로 그 아들을 때려 죽임으로써, 피할 수도 있었을 참혹한 살상을 초래한 자칭 아버지의 목소리와 타살행위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전부이다.

“그러나 그들이 역시 사람들이 가득 찬 성당 앞 뜰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추적하던 미친 듯이 날뛰는 무리 속에서 한 목소리가, 시민 여러분, 이 놈이 예로니모 루체라요, 나는 이 자의 친 애비요! 라고 외치고는 돈나 콘스탄체 옆에 있던 그를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때려 눕혔다.” (Text, 698)

Doch kaum waren sie auf den von Menschen gleichfalls erfüllten Vorplatz derselben getreten, als eine Stimme aus dem rasenden Haufen, der sie verfolgt hatte, rief: dies ist Jeronimo Rugera, ihr Bürger, denn ich bin sein eigner Vater! und ihn an Donna Constanzens Seite mit einem ungeheuren Keulenschlage zu Boden streckte.

예로니모 루체라를 알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간신히 사지를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루체라의 아버지가 등장했다. 그리고는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가 바로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들인 것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등장을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한 목소리 eine Stimme”라는 표현으로만 알림으로써 작가가 인격체로서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은 요제페의 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인간의 비인간화는 가정을 넘어 선 사회의 차원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요제페가 언도받은 “화형 Feuertod”이 “단두형 Enthauptung”으로 완화된 것 때문에 크게 분노한 산티 아고의 귀부인과 처녀들의 반응(Text, 688)과 바로 다음 단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도시 사



람들의 작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시내에서는 이 불상사에 대해서 분노의 소리가 자자했고, 그 불상사가 생긴 수도원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아스테론 가문의 탄원과, 그 밖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행동 때문에 그 어린 소녀를 좋아했던 여자 수도원장의 간청도, 그녀에게 적용될 수도원 율법의 준엄함을 완화시킬 수 없었다. 생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녀가 언도 받은 화형이, 그 결과 산티 아고의 귀부인과 처녀들의 큰 분노를 사게 되었지만, 부왕의 칙령에 의해, 단두형으로 바뀐 것이었다.

사형 집행 행렬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리에서는 창문이 임대되었으며, 지붕이 걷어 치워졌고, 그 도시의 경건한 딸들은, 하나님의 보복이 가해질 때 벌어질 쇼에 여자들끼리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여자 친구들을 초대했다.” (Text, 688)

Man sprach in der Stadt mit einer so großen Erbitterung von diesem Skandal, und die Zungen fielen so scharf über das ganze Kloster her, in welchem er sich zugetragen hatte, daß weder die Fürbitte der Familie Asteron, noch auch sogar der Wunsch der Äbtissin selbst, welche das junge Mädchen wegen ihres sonst untadelhaften Betragens lieb gewonnen hatte, die Strenge, mit welcher das klösterliche Gesetz sie bedrohte, mildern konnte. Alles, was geschehen konnte, war, daß der Feuertod, zu dem sie verurteilt wurde, zur großen Entrüstung der Matronen und Jungfrauen von St. Jago, durch einen Machtspruch des Vizekönigs, in eine Enthauptung verwandelt ward.

Man vermietete in den Straßen, durch welche der Hinrichtungszug gehen sollte, die Fenster, man trug die Dächer der Häuser ab, und die frommen Tochter der Stadt luden ihre Freundinnen ein, um dem Schauspiele, das der göttlichen Rache gegeben wurde, an ihrer schwesterlichen Seite beizuwohnen.

같은 여자로서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고소해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이들 역시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소외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

또 이 텍스트에서는 친분관계가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마이스터 페드릴로 Meister Pedrillo” (Text, 697)와 “요제페 아스테론 Josephe Asteron” (Text, 697)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사이다. 예전에 구두 수선공과 손님으로서의 친숙했던 그들의 친분관계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화를 초래하는 원수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 요제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이 페드릴로가 “사탄의 무리의 괴수 der Fürst der satanischen Rotte” (Text, 698)로서 끝까지 폭력을 주도한다. 가족과 그녀를 잘 아는 여자 수도원장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의 강력한 법률 때문에 가혹한 벌을 받게 되었다가 우연히 그 벌을 피할 수 있게 된 요제페에 대한 페드릴로의 처사는 인간성을 상실한 이웃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해군 고위장교인 돈 알론초 오노레자 Don Alonzo Onoreja의 태도에서도 소외된 인간관계를 엿볼 수가 있다. 그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불법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친구를 위해 한 일은 칼을 빌려 주는 것 뿐이었다. 그는 “몇 가지 상황 때문에 durch mehrere Umstände” (Text, 698)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상황”이란 당시의 종교와 정치라는 사회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해군 장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나 종교의 질서를 오히려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시한 것이다.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당시 사회 구조의 소외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 이 노벨레는 당시의 종교 사회의 구조가 극단적인 소외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도미니크 성당에서의 설교 도중에 종교지도자는 저주로 가득 찬 빛나간 설교를 했다. 예로니모와 요제페의 이름까지 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 그 종교지도자의 설교를 큰 소리로 가로 막으며 외치는 “한 목소리 eine Stimme”가 등장했다. “멀찍이들 비켜 서시오, 산

티아고 시민 여러분, 여기 그 사악한 인간들이 있소! Weicher fern hinweg, ihr Bürger von St. Jago, hier stehen diese gottlosen Menschen!" (Text, 696) 이렇게 해서 설교는 중단되고 피의 폭력이, 그것도 성당 안에서 자행되기 시작된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텍스트에 형상화된 사회는 구조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소외되어 있었으며, 이 사회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사회인습에 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 4. 텍스트에 나타난 폭력

### 4.1. 가족의 폭력

요제페의 아버지는 “음흉한” 아들의 “은밀한” 밀고를 접하고는 화가 나서 외동딸을 수도원에 집어 넣어 버렸다. 가정에서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팽개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딸을 비인격적인 종교 제도에 내맡김으로써, 자신의 딸을 보다 큰 사회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 결과 예로니모는 가족의 보호를 벗어 나게 된 요제페를 수도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운을 잡게 된다.

“행복한 우연을 통해 예로니모는 여기에서 요제페와 다시 결합할 수 있었는데, 어느 고요한 밤 그는 수도원의 정원을 그의 넘치는 행복의 무대로 만들었다.” (Text, 688)

Durch einen glücklichen Zufall hatte Jeronimo hier die Verbindung von neuem anzuknüpfen gewußt, und in einer verschwiegenen Nacht den Klostergarten zum Schauplatz seines vollen Glückes gemacht.

그런데 이 소설의 세상은 발생동기 자체가 우연이기 때문에 합리적 고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우연한 사건”<sup>24)</sup>들로 이루어져 있는 예측불허의 공간이다. 예로니모가 자살하려는 순간에 지진이 발생한 것도 우연이며, 수도원으로 내쫓긴 요제페와 예로니모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며, 사형집행 직전에 지진이 발생하여 요제페가 살아나게 된 것도 우연이며,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 페르난도 가족을 만나 그 생각을 바꾸게 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도 우연이었다.

이렇듯 우연한 사건이 빈발하는 예측불허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조심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렇지 못한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우연에 더욱 더 노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제페의 아버지의 행동을 외동딸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제페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 예로니모는 우연한 행복을 거머쥐기는 했지만 그 행복은 곧바로 요제페의 임신과 그로 인한 그녀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위의 인용문과 함께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다음의 한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성체 축일이었는데, 뒤따르는 수련 수녀들을 거느린 수녀들의 엄숙한 행렬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 그 불행한 요제페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진통을 느끼며 대성당의 계단 위에 쓰러졌다.” (Text, 688)

Es war am Fronleichnamsfeste, und die feierliche Prozession der Nonnen, welchen die Novizen folgten, nahm eben ihren Anfang, als die unglückliche Josephe, bei dem Anklang der Glocken, in Mutterwehen auf den Stufen der Kathedrale niedersank.

루게라에게 행복을 안겨 준 우연에 관한 문장과 함께 하나의 문단을 이루며 바로 이어지는 위의 문장은,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통을 느끼며 대성당 계단에 쓰러진 요제페의 불행을

24) 신태호,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연구, 59쪽.

보고하고 있다. 객관적인 보고체 문장에 들어 있는 형용사 “불행한 unglücklich”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루게라의 우연한 행복이 당장 요제페의 불행으로 이어짐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가족 차원의 폭력은 루게라의 아버지에게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루게라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단 한 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놈이 예로니모 루게라요, 시민 여러분, 나는 이 자의 친 애비요! diese ist Jeronimo Rugera, ihr Bürger, denn ich bin sein eigner Vater!” (Text, 698)라고 하는 외침소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난 익명의 ‘자칭’ 아버지는 친 아들을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죽인다. 이보다 더한 폭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신분만 밝혀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밝힌 것도 부족해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때려 죽인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생명의 원천인 아버지가 죽음의 사자로 전도된 것이다.

#### 4.2. 사회의 폭력

사회 차원의 폭력은 요제페가 수녀원의 성체축일 행사 때에 진통을 느끼고 대성당 계단에 쓰러진 바로 뒤에 나타난다.

“이 사건은 비상한 주의를 끌게 되었는데, 그 젊은 여자 죄인은, 그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 당장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그녀는 산욕에서 일어나자마자, 대승정의 명령에 따라, 지극히 엄한 재판을 받았다.” (Text, 688)

Dieser Vorfall machte außerordentliches Aufsehen; man brachte die junge Sünderin, ohne Rücksicht auf ihren Zustand, sogleich in ein Gefängnis, und kaum war sie aus den Wochen erstanden, als ihr schon, auf Befehl des Erzbischofs, der geschärfteste Prozeß gemacht ward.

그 죄인은 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감되며 “산욕에서 일어나자마자” 지극히 엄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죄는 믿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폭력적인 처사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은 이 불상사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 특히 부인과 처녀들의 반응이었다.

외동딸의 불행을 접한 아스테론 집안 사람들은 감형을 탄원했고, 요제페를 잘 아는 수도원 원장도 간청을 했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었다. 무엇보다도 동료 인간들의 동정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화형이 단독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부인과 처녀들이 오히려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결여된 사회, 즉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회의 참모습이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자연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요제페는 목숨을 구하게 된다. 객관적인 르뽀형식으로 보고된 이 지진은 요제페에 가해진 사회의 폭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요제페에게 폭력을 가한 거의 모든 사회제도와 인간들의 별질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요제페에게 “화형”을 언도한 “수도원 전부 das ganze Kloster”가 불에 탔으며, 지극히 엄한 재판을 명한 “대주교 Erzbischof”가 죽었고, 그녀를 심판한 장소인 “법정 Gerichtshof”이 불에 탔고, 부왕의 궁전이 침몰했고,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은 호수로 변했고, 예로니모가 갇힌 감옥은 부숴졌다. (Text, 691)

사회 차원의 맹목적인 폭력이 노골적으로 행사된 것은 “지진의 보호를 받은 유일한 성당인 도미니크 성당에서 in der Dominikanerkirche, der einzigen, welche das Erdbeben verschont hatte” (Text, 695)였다.

“그러나 (...), 그 성직자의 설교를 큰 소리로 중단시키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멀찍히 물러들 서시오, 산티아고 시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람들이 여기 있소!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 깜짝 놀라, 어디요? 라고 묻자, 여기요! 라고 세번째 소리가 응답하고는, 성

스러운 극악무도함을 이기지 못하고, 요제페의 머리채를 나꿔  
 쳤는데, 페르난도가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돈 페르난도의  
 아들과 함께 바닥에 꼬꾸라졌을 것이다.” (Text, 696f.)

Doch (...) rief schon eine Stimme, des Chorherrn Predigt laut  
 unterbrechend, aus: Weichet fern hinweg, ihr Bürger von St.  
 Jago, hier stehen diese gottlosen Menschen! Und als eine  
 andere Stimme schreckenvoll, indessen sich ein weiter Kreis  
 des Entsetzens um sie bildete, fragte: wo? hier! versetzte  
 ein Dritter, und zog, heiliger Ruchlosigkeit voll, Josephen bei  
 den Haaren nieder, daß sie mit Don Fernandos Sohn zu  
 Boden getaumelt wäre, wenn dieser sie nicht gehalten hätte.

이는 요제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그 뒤에 가해지는 폭력을  
 가능한 한 실감있게 전달하기 위해 각각 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  
 는 대목이다. 이렇게 익명의 동료 인간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  
 은 종교지도자가 설교하다가 그만 옆길로 빠져서 잔뜩 저주를 퍼부  
 어 낸 결과였다. 본래 이 미사의 목적은 “또 다른 불행을 막아 주  
 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함 den Himmel um Verhütung ferneren  
 Unglücks anzuflehen”이었다. (Text, 695)

이렇게 성직자의 선동으로 시작된 사회의 폭력은 “이 거룩한 영  
 응 dieser gottliche Held” (Text, 698), 돈 페르난도의 노력으로도  
 건잡을 수 없게 된다.

처음에는 돈 페르난도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 같았다.  
 요제페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의 무리의 괴수 der Fürst der  
 satanischenn Rotte” (Text, 698) 페드릴로였지만, 그 아이의 아버  
 지일 것으로 여겼던 페르난도의 신분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그로서  
 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로니모의 아버지가 익명  
 의 음성으로 등장하여 예로니모 루게라를 찾아 몽둥이로 때려 죽이  
 게 되자 사회의 맹목적인 폭력이 노골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다.

“맙소사! 하고 외치며 돈나 콘스탄체는 자기 형부 쪽으로 피했

다. 그러나, 어느새, 수도원 창녀! 하는 소리가, 두 번째 몽둥이  
질과 함께, 다른 쪽에서 울려 퍼지더니, 그녀를 죽여 예로니모  
곁에 내동댕이쳤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은 돈나 콘스탄  
체 크사레스였는데! 모르는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그자들이 왜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 구두수선공이 응답했다. 진짜 그년을  
찾아 내서 그년을 죽여라!” (Text, 698)

Jesus Maria! rief Donna Constanze, und floh zu ihrem  
Schwager; doch: Klostermetze! erscholl es schon, mit einem  
zweiten Keulenschlage, von einer anderen Seite, der sie  
leiblos neben Jeronimo niederwarf. Ungeheuer! rief ein  
Unbekannter: dies war Donna Constanze Xares! Warum  
belogen sie uns! antwortete der Schuster; sucht die rechte  
auf, und bringt sie um!

예로니모의 아버지가 몽둥이로 친아들을 때려 죽인 폭력이 행사  
되고 난 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휘두른 몽둥이에 페르난도의  
처제인 돈나 콘스탄체가 맞아 죽는다. 요제페를 알아 본 페드릴로  
가 두목인 “사탄의 무리”였지만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맹목적  
인 폭력이 행사된 것이다.

“사탄의 무리의 괴수” 페드릴로는 “사생아 Bastard”까지 죽이려  
들었다. 페르난도의 결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로 오인  
된 페르난도의 아들 환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전능하신 분의 신호 Wink des Almächtigen”에 따라 일어 난,  
“최후의 심판 das Weltgericht”보다도 더 무서운 지진(Text, S.  
696)의 도움으로 오히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예로니모와 요제페,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돈나 콘스탄체와 갓난이 환 Juan을 동료 인  
간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죽인 것이다. 이 폭력은 종교지도자의  
빛나간 설교에 바로 뒤이어 일어 난 것으로서 당시의 사회가 종교  
적으로 극단적인 소외 상태에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 5. 결 론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칠레의 지진」은 수도원을 더럽힌 죄로 단두형을 언도받고 형장에 끌려 가던 미혼모 요제페와 감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살하려던 요제페의 애인 예로니모가 지진 때문에 우연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노벨레의 결말에서 이들은 바로 동료인간들에 의해 살해된다. “전능하신 분의 신호”에 따라 일어난 지진 때문에 살아 나게 된 이 두 사람이 동료 인간들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폭력을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와 관련시킴으로써 이 노벨레에 대한 내재적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 노벨레에서 형상화된 폭력은 바로 사회구조적인 의미에서의 소외의 결과였다. 이 소외된 사회구조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간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예로니모의 아버지에 의한 아들의 타살이다.

이 노벨레에는 사회와 자연의 힘이 “예측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며, 파괴적인 unberechenbar, irrational und zerstörend”<sup>25)</sup>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돌발사태로서의 지진 때문에 기절하기까지 하는 인물들은 “세상의 우연성에 대한 작가의 경악 das Erschrecken des Dichters vor der Zufälligkeit in der Welt”<sup>26)</sup>을 보여 주고, 목숨을 걸고 “자기 일행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두고 보느니 차라리 죽기 eher umkommen, als zugeben, daß seiner Gesellschaft etwas zu Leide geschehe” (Text, 697f.)를 각오하고 사탄의 무리들과 홀로 맞서 싸우는 영웅 페르난도의 고군분투는 작가의 “통일성에 대한 열렬한 탐색 sein leidenschaftliches Suchen nach Einheit”<sup>27)</sup>을 보여 주고 있다.

25) W. Silz, Das Erdbeben in Chili, 362f.

26) H. P. Herrmann, Zufall und Ich, S. 401.

27) Ebd.

그러나 영웅 페르난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처참하게 죽어 있는 아들 환을 본 페르난도는 고통스럽게 하늘만 쳐다 볼 뿐이었다. 그리고 양자로 삼은 필립을 자신의 아들 환과 비교해 보고, 또 이 두 아이를 모두 얻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 페르난도로서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so war es ihm fast, als müßt er sich freuen”. (Text, 698)

바로 이 대목을 놓고 몇몇 사람들은 이 노벨레의 결말을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것으로 für positiv und optimistisch”, 즉 필립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상징되고 있는 “정복할 수 없는 생명 das unbesiegbare Leben”이 승리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sup>28)</sup>

그러나 위에 인용한 마지막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런 낙관론은 부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거의 fast”, “마치 ... 할 것 같은 als ob”, 그리고 접속법 2식형 “müßt” 등 “삼중으로 조건 지워진 약화된 진술문 eine gedämpfte und dreifach bedingte Aussage”<sup>29)</sup> 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페르난도가 느낀 것은 자신의 “무력감 Machtlosigkeit”과 자기 행동의 “무의미성 Sinnlosigkeit” 바로 그것이었다.<sup>30)</sup> 고통스럽게 하늘만 쳐다 보는 페르난도의 모습은 지진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 간 뒤 허탈감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다.<sup>31)</sup>

“끊임 없이 터지는 우연들 ständig einbrechende Zufälle”<sup>32)</sup> 때문에 질서를 세우려는 몇몇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산되고 인간의 계획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이 텍스트에서, “이 신성한 영웅” 페르난도의 최후의 시도마저 지극히 우연한 예로니모 아버지의 등장으로 무산되고 만다.

28) W. Silz, Das Erdbeben in Chili, S. 362. H. Pongs, G. Blöcker 등이 대표적임.

29) W. Silz, a.a.O., S. 362.

30) 시맨은 소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이 둘을 포함하여 다섯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고 한다. Vgl. J. Israel, Der Begriff Entfremdung, Reinbek bei Hamburg 1972, S. 254 - 260.

31) 실츠는 긴박감 있는 이 노벨레의 첫문장과 힘 없는 마지막 문장을 분석한 뒤, 이 노벨레에서 클라이스트는 제목에서 기대되는 바와 같은 “불변의 특유한 지진의 이미지 ein besonderes, stehendes Bild des Erdbebens”를 제시해 보이고 있다고 단정한다. W. Silz, Das Erdbeben in Chili, S. 356.

32) H. P. Herrmann, Zufall und Ich, S. 406.

이는 이 텍스트의 공간이 신 같은 영웅의 시도도 지극히 우연한 인간의 출현에 의해 무산되고 마는 예측불허의 세계, 즉 소외된 사회임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사회의 인간 대다수도 그들 고유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소외된 사회의 인습에 따라 비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제페의 가족과 예로니모의 가족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소외는 사회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물신(物神)에 불과한 종교와 정치의 사회질서를 숭배함으로써 소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비인간화를 보이고 있다. 미사 도중에 빛나간 설교를 함으로써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종교지도자는 특히 종교계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 본 폭력은 결국 소외와 이로 인한 인간의 비인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Zusammenfassung

### Entfremdung und Gewalt in Kleists 『Das Erdbeben in Chili』

Sung-Hoe Song

Kleists Novelle 「Das Erdbeben in Chili」 beginnt damit, daß eine unverheiratete Mutter namens Josephe, die wegen der Schändung des Karmeliterklosters zum Richtplatze gebracht wurde, und ein Spanier, Jeronimo Rugera, der sich an einem Pfeiler des Gefängnisses erhängen wollte, durch die große Erderschütterung zufällig gerettet werden. Aber am Schluß der Novelle werden die beiden ausgezeichnet von Mitmenschen getötet. Das heißt, die beiden, die durch das Erdbeben gerettet

wurden, wurden durch die Gewalt ihrer Mitmenschen getötet. Diese Gewalt ist aber um so bedenklicher, als das Erdbeben in dieser Novelle "auf den Wink des Allmächtigen geschehen war".

In dieser Arbeit wird eine textimmanente Interpretation der Novelle versucht, wobei diese Gewalt in Beziehung zum soziologischen Begriff 'Entfremdung' gesetzt wird.

Die in dieser Novelle gestaltete Gewalt war das Ergebnis der Entfremdung von der sozialstrukturellen Bedeutung. Diese entfremdete Sozialstruktur ist den Menschen nicht bewußt, so daß sie sogar in der Familie die Entmenschlichung des Menschen verursacht. Das zeigt sich ganz klar darin, daß Jeronimo gerade von seinem eigenen Vater totgeschlagen wurde.

In dieser Novelle sind die Kräfte der Gesellschaft und der Natur als unberechenbar, irrational und zerstörend dargestellt.

In der tiefsten Bewußtlosigkeit, in der die Personen sich bei der zufälligen Erderschütterung befanden, zeigt sich das Erschrecken des Dichters vor der Zufälligkeit in der Welt, und im einsamen Kampf von Fernando, der auf Leben und Tod gegen die satanische Rotte kämpft, zeigt sich sein leidenschaftliches Suchen nach Einheit.

Aber die Bemühung dieses göttlichen Helden hat keinen Erfolg. Als Don Fernando seinen kleinen Sohn tot da liegen sah, richtete er voll namenlosen Schmerzes seine Augen zum Himmel.

In diesem Text ist sogar Fernandos letzter Versuch, gerade wegen des zufälligen Erscheinens von Jeronimos unbekanntem Vater, an seine Grenzen gekommen. Darin demaskiert sich der in diesem Text gestaltete Raum als eine unberechenbare, entfremdete Gesellschaft. In dieser Gesellschaft führt man meistens ein konventionelles, unmenschliches Leben, weil man seine eigene Menschlichkeit verloren hat.

Schließlich kann man feststellen, daß die in dieser Arbeit

analysierte Gewalt das Ergebnis der Entfremdung und der Entmenschlichung des Menschen ist.

## 참고문헌

### I. Text

Heinrich von Kleist, Das Erdbeben in Chili, in: Ders., Werke in einem Band, München 1966, S. 687 - 699.

### II. 이차문헌

Beda Allemann, Der Nationalismus Heinrich von Kleists, in: W. Müller-Seidel (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46 - 54.

K. H. Bohrer, Kleists Selbstmord, in: W. Müller-Seidel (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281 - 306.

P. Goldammer, Der Mythos um Heinrich von Kleist, in: W. Müller-Seidel(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232 - 250.

E. Heller, Die Demolierung eines Marionettentheaters oder Psychoanalyse und der Mißbrauch der Literatur, in: W. Müller-Seidel(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261 - 280.

H. P. Herrmann, Zufall und Ich, in: W. Müller-Seidel (Hg.), Heinrich von Kleist, Darmstadt 1980, S. 367 - 411.

J. Israel, Der Begriff Entfremdung, Reinbek bei Hamburg 1972.

Fr. A. Kittler, Das Erdbeben in Chili und Preußen, in: D. E. Wellberry (Hg.), Positionen der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1985, S. 24 - 38.

E. Köhler, Der literarische Zufall, das Mögliche und die Notwendigkeit, München 1973.

- K. Müller-Salget, Das Prinzip der Doppeldeutigkeit in Kleists Erzählungen, in: W. Müller-Seidel(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166 - 199.
- W. Müller-Seidel, Kleists Aktualität - Eine einführende Betrachtung -, in: Ders.(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1 - 24.
- H. Politzer, Auf der Suche nach Identität, in: W. Müller-Seidel (Hg.), Kleists Aktualität, Darmstadt 1981, S. 55 - 76.
- W. Silz, Das Erdbeben in Chili, in: W. Müller-Seidel (Hg.), Heinrich von Kleist, Darmstadt 1980, S. 351 - 366.
- 신태호, Heinrich von Kleist의 소설기법, 실린 곳: 독일문학, 28(1982), 204-218 쪽.
- 신태호,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3.
- 신오현, '소외이론의 구조와 유형, 실린곳: 정문길 편, 소외, 서울 1984, 33 - 62 쪽.
- 정문길,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외, 실린곳: 정문길 편, 소외, 서울 1984, 197 - 212 쪽.
- 월터 카우프만 (김병익 역), 소외에 대한 관심, 실린곳: 정문길 편, 소외, 서울 1984, 19 - 32 쪽.
- 김진영, 소외와 아노미, 제대논문집 26 (1988), 229 - 247 쪽.
- N. 로텐라이히 (정승현 옮김), 청년 맑스의 철학, 서울 1985.